

성경 중심의 생각, 성경 중심의 삶으로

— 어느 작은 교회의 ‘은혜 나눔’ 이야기 김성수 목사 (목양교회)

저는 20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만 9년째 ‘목양교회’라는 작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더 크고 조건이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 주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신 곳이 저의 사역지라 믿었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20명 남짓인 데다 연령대도 점점 높아지는, 서민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작은 움직임 하나를 시작할 때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이 연약한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목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거창한 사역이나 봉사를 기획하기보다, 성도들 각자의 무너진 삶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거세게 밀려오는 삶의 파도를 피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담담하게 헤엄쳐 나가겠다는 방탄소년단(BTS)의 노래의 가사처럼,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지렛대 삼아 돕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내린 제도적 형식주의는 종종 영적인 생명력을 무력화하곤 합니다. 고(故) 옥한흠 목사님께서 훗날 제자훈련을 돌아보며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랐지만, 의도와 다르게 머리만 커졌을 뿐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며 아쉬워하셨던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기복주의와 근본주의를 성찰하지 못한 채 성경 지식을 제도권 교회 내에서의 존재감 확인 용도로 소모해 온 흐름 탓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양교회에 부임한 이후 9년 동안, 매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은혜 나눔]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보 한 면에 설

교 내용을 되새길 수 있는 질문지를 싣고, 당일 선포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초창기에는 자신의 생각과 영적 이해를 표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다들 낯설고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나 9년이 흐른 지금, 성도들은 단순한 은혜 나눔을 넘어 신학적 개념까지 토의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의 설교나 방송 매체의 메시지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스스로 파악하다 보니, 종교적 용어만 화려할 뿐 성경과 무관한 설교들을 분별하며 한국교회의 강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별도의 성경 공부나 신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비추어 나누는 과정에서 구원론, 칭의론, 종말론 등 조직신학의 뼈대가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삶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은 본문의 이면까지 스스로 묵상하고 질문하며 새로운 발견을 나누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 성탄절 기간에 미얀마 선교 비전트립을 떠납니다. 과거 40년 동안 선교 헌금만 할 뿐 선교의 참의미를 모르던 성도들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한 후에는 강권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섭니다. 무릎과 허리를 수술하신 분,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기꺼이 오지의 현장으로 향하여 헌신합니다. 이는 지난 40년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작은 교회의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본은 ‘은혜 나눔’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경이라는 호수에서 마음껏 헤엄치며(SWIM) 머물다 보니, 어느새 성도들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 힘차게 헤엄쳐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작은 교회일지라도,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 나눔’이 있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저희 목양교회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씨앗으로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